

지체의 말씀

불기 2562년 3월 / 통권 445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證道歌(증도가)

종 타 방 임 타 비 파 화 소 천 도 자 피
從他謗任他非하라 把火燒天徒自疲로다.

남이 비방할지라도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이 그르다 하여도 그냥 두어라.
마치 불을 잡아 하늘을 태우려 하니 헛되이 자기 자신만 괴롭힐 뿐이다.

아 문 흡 사 음 감 로 소 용 돈 입 부 사 의
我聞恰似飲甘露하야 銷融頓入不思議이라.

나는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 마치 감로수를 마시는 것과 같아서
녹아서 곧바로 불가사의한 경계에 들어간다.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개 이야기 / 윤성스님

불교상식 · 7

천수경 강의(千手經 講義)

부처님의 말씀 · 12

알림마당 · 17

대광사 3월의 행사

고맙습니다

3월 유치원 행사

어린이법회 3월 활동

대광산악회 산행 안내



표지그림 / 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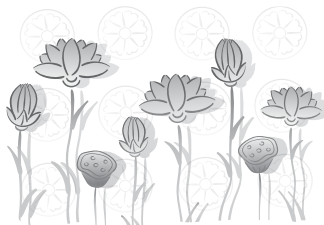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서경스님

● 주 간 / 이숙경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Tel. 055) 602-6267





개 이야기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무술년이 시작 된지도 벌써 석달이 넘어서고 있다. 오행상으로 무(戊)는 중앙에 해당하고 중앙은 황색에 해당하기에 올해는 황금 개띠의 해이다. 황금 개띠는 다른 개띠보다 행운을 준다는 속설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아이를 더 많이 낳으려 하기도 한다.

개는 인류가 동굴에서 집단생활을 시작한 원시시대부터 사람들과 함께 살아 온 반려의 존재였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사람들이 기르고 함께 살아온 개의 조상은 늑대일 것이 틀림없다. 어린 늑대를 길들여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이나 뼈다귀를 먹여 길러서 사냥에 이용하고 집 지키는 역할을 하게 했을 것이다.

수십만 년 혹은 수만 년을 인간과 함께 살면서 잘 길들여진 개는 지금은 사람이 사는 어디라도 함께하며 사냥에, 집 지키는 일에, 맹인의 길잡이에, 마약 탐지에, 외로운 이의 반려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활 속의 공생 관계로 지내고 있다.

고려 공양왕 때 나라에 전염병이 크게 돌아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아직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다섯 살 눈먼 아이를 남겨놓고





부모가 다 죽은 집이 있었다.

그 집에 개 한 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아이가 굶어 죽기에 이르자 개가 아이에게 꼬리를 잡게 하여 집들을 다니며 걸식하게 하고 밥 먹고 나면 샘가로 데려가 물을 먹게까지 했다.

이런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임금의 개에게 정 3품의 벼슬을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자비로운 보살이 개로 환생하여 사람들에게 덕을 쌓고 선행을 짓는 본보기가 보이신 것이라 여기며 합장하여 절을 했다고 한다.

개와 인간은 그렇게 역사 이래의 아주 오랜 세월을 삶의 파트너로 지내며 양치기에도, 경비견으로도 썰매견으로도 이용하며 더러는 상하관계로 더러는 절친한 친구로 지내왔다.

잘 길들여진 개는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특성이 있어서 죽음을 무릅쓴 헌신적 복종을 하기도 하기에 지금은 거의 동물과 사람의 주종관계를 넘어선 가족관계로 까지 생각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장대리 분명마을 서쪽 산기슭에는 「열부 정태의 처 박씨 지려(烈婦鄭太乙妻朴氏之閭)」와 「정가구(鄭家狗)」라고 새겨진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두 개의 비석이 정답게 서 있다.

임진왜란에 미쳐 피란을 가지 못한 경북 의성의 분명마을 박씨 부인은 왜놈의 강제 추행을 자결로 대응하여 조선 여인의 절개를 지켰다. 그 집 개는 주인의 시체를 지키며 자리를 뜨지 않고 굶어 죽었다. 뒤에 피난에서 돌아온 가족들이 여인의 절개를 기리고 개의 충성을 기리는 비석을 나란히 세워 후세에 전하는 표징으로 삼았다고 한다.

개는 그렇게 우리들과 역사를 같이하고 삶을 함께하는 벗과 다름 없고 가족에 준하는 살가운 존재인 것은 틀림없지만 요즈음의 개에 대한 사랑은 도를 넘은 듯 하여 그다지 반갑지 않은 않다.

가정에서의 우선순위가 남편보다 개가 먼저고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보다 개가 먼저라는 속담이 절대 공감을 받고 있는 현실은 정말 사람이 사람다운 가치관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다. 개를 잘 보살피 준다는 폭넓은 자비는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먼저 새겨야 할 것은 개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하고 먼저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옳고 그른 것과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갖지 못한다면 결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지킬 때 비로소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하물며 개도 주인과 객을 분명히 가리지 않는가?



불교 상식

천수경 강의(千手經 講義)

(1) 경초의 진언

천수경은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으로 시작한다. 진언은 범어의 다라니(dharani) 또는 만다라(mantra)를 번역한 말이다. 진언은 주사(呪詞), 주문(呪文)과도 같은 뜻이다. 이는 호법신의 노래, 부처님의 참다운 말씀, 보살님들의 기원하는 말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구업진언이란 천수다라니를 독송하기 전에 우리의 입을 정결히 해야하기 때문에 정구업진언을 외우는 것이다.

이 진언에는 옴(唵, om) 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때로는 옴자가 있는 예도 있다. 진언에 있어서 ‘옴’과 ‘사바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옴은 매우 신성한 뜻을 간직한 음이라 하여, 인도에서는 종교의식에 꼭 제창하는 음이며, ‘귀의(歸依), 공양(供養)’의 뜻이 있다.

사바하(svaha)는 ‘원만(圓滿) · 성취(成就)’ 등의 뜻이다. 진언은 옴으로 시작해서 사바하로 끝나는 것이 상례이다.

이것은 ‘비옴나이다.……들이 속히 성취되기를 비옴나이다.



원만히 성취도기를 비옵나이다.’ 하는 격식이다. 움자가 없는 진언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진언의 본문에 있어서는 해석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진언의 신비성과 불가사의성을 감안하여 해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번 천수경 강의에서도 진언 자체에 대해서는 해설을 피하고자 한다.

두 번째 진언으로는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五方内外安慰諸神眞言)’이다. 천수경을 봉독하기 전에 온 주위에 있는 신들을 편안히 안심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이 진언을 외운다. 여기서 신이라는 말은 천신, 지신 등 중생과 동격의 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진언이 끝나면 ‘개경게(開經偈)’가 나온다. 이것은 경전을 펴면서 찬탄과 원력(願力)을 일으키는 게송(偈頌)이다.

게송이란 범어의 가타(Gatha)를 ‘게(偈)’로 음역했으며, 뜻으로는 ‘가요·성가·시구’의 내용을 나타낸다. 여기에 시경(詩境)에 나오는 ‘풍(風) 아(雅) 송(頌)’ 중의 송(頌)을 붙여 ‘게송(偈頌)’이라 한다. 어원을 분석하면 ‘게’는 범어이고 ‘송’은 한문이다. 이들이 합해져서 하나의 시구를 표현하는 말로 ‘게송’이라 한다

無上甚深微妙法 무상심심미묘법
 百千萬劫難遭遇 백천만겁난조우
 我今聞見得受持 아금문견득수지
 願解如來眞實義 원해여래진실의

부처님의 높고 깊은 가르침은
 백천만 겁이 지나도록 만나기가 어렵도다
 나는 지금 듣고 보아받아 간직했으니
 여래의 참된 뜻을 알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리하여 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으로 이어진다. 법장(法藏)은 진리가 소장된 창고란 뜻이며, 경전(經典)을 가리킨다.

부처님의 경전은 한없는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법장이라 한다. 이 개법장진언은 경전은 펴면서 발원하는 진언이다.

(2) 계청문(啓請文)

개법장진언에 이어서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 대다라니’의 경의 제목이 나오고, 바로 계청문으로 연결된다. 일반적인 경의 체제는 경의 제목이 나오면 역자가 소개되고 곧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천수다라니에서는 그렇지 않고 중간에 긴 계청문이 삽입되어 있다. 이것은 천수다라니를 읽기 전에 관세음보살과 아미타불을 청하는 의식문(儀式文)이다. 이 계청문의 계송은 대장경의 천수경에도 수록되었으나, 본래 경의 본문 경의 본문 아니고 관세음보살을 청하는 문장이다. 계청문은 다음과 같다.

稽首關音大悲主	계수관음대비주
願力弘深相好身	원력홍심상호신
千臂莊嚴普護持	천비장엄보호지
天眼光名變觀照	천안광명변관조
眞實語中宣密語	진실어중선밀어
無爲心內起悲心	무위심내기비심
速令滿足諸希求	속령만족제희구
永使滅除諸非業	영시멸제제죄업
天龍眾聖同慈護	천룡중성동자호
百千三昧頻動修	백천삼매돈훈수



受持身是光明幢 수지신시광명당
受持心是神通藏 수지심시신통장
洗滌塵勞願齊海 세척진로원제해
超證菩提方便門 초증보리방편문
所願從心悉圓滿 소원종심실원만

자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경례하옵나이다.
원력이 너르고 깊으시며, 상호거룩하사
천 손으로 중생을 돌보시고
천 눈으로 법계(法界)를 관찰하시나이다.
진실한 말씀으로 비밀어를 선설하시고
평등한 마음으로 자비심을 일으키시옵나이다.
저희들의 원하는 일 만족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업들을 영원히 소멸하게 하소서.
천룡의 호법성증은 자비로 보살피어
우리들의 온갖 불법을 다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수경을 외우면 이 마음은 신통의 곳집이옵나이다.
번뇌를 씻고 고해를 건너
속히 성불하게 하소서
저희들은 천수경을 독송하고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원하는 일 다 성취되게 하소서.

이 계청문은 문장이 아름다우며 장엄하고 내용의 폭이 매우
너르다. 관세음보살님께 대한 깊은 찬탄과 발원이며, 자신의
죄업에 대한 깊은 참회의 문장이다.

이러한 계청문에 이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여 발원(發
願)을 올린다. 하나하나에 대승불교의 근본 발원(중생교화와
불국토 건설)이 선명하다.



첫 번째 말씀(숫타니파타)

제1품 뱀의 품

파멸의 경 [Parābhava-sutta]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싸왓띠 시의 제따와나에 있는 아나타뻔디까 승원에 계셨다.

그때 어떤 하늘사람이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제따와나를 두루 밝히며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섰다. 한쪽으로 물러서서 그 하늘 사람은 세존께 시로써 여쭙어보았다.

[하늘사람] “저희는 파멸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따마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파멸에 이르는 문은 어떤 것입니까? 세존께 그것을 묻고자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세존] “번영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도 알아보기 쉽습니다. 가르침을 사랑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은 파멸합니다.”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둘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세존] “참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사랑하고, 참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며, 나쁜 사람이 하는 일을 즐기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둘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셋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세존] “수면에 빠지는 버릇이 있고, 교제를 즐기는 버릇이 있고, 정진하지 않고, 나태하며¹⁾, 화를 잘 낸다면²⁾,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셋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넷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세존] “자기는 풍족하게 살면서도, 늙게 되어 젊음을 잃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넷째 파멸입니다.

1) SN. II 수행승들이여, 게으른 자는 괴롭게 살아가며 착하지 않은 나쁜 가르침에 빠져 위대한 이상을 버린다. 수행승들이여, 정진하는 자는 즐겁게 살아가며 착하지 않은 나쁜 가르침을 멀리하고 위대한 이상을 실현한다.

2) SN. I 오랜 옛날 수행승들이여, 하늘사람들이 제왕 제석천이 꾸담마 집회장에서 도리천의 하늘사람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분노가 자신을 이기게 하지 말고, 분노하는 자에게 분노를 돌려주지 마라. 분노가 없고 해침이 없는 자는 항상 거룩한 님 가운데 사네. 산이 짓누르는 것처럼 분노는 악한 자를 짓누르네.’



대광사 3월 법회 및 행사

- ◆ 3월 2일 : 음력 1월 보름법회, 동안거 해제
 - ◆ 3월 11일 : 관음재일 다라니기도 오후 1시 대웅전
 - ◆ 3월 17일 : 음력 2월 초하루기도 입재
 - ◆ 3월 19일 : 초하루기도 회향
 - ◆ 3월 24일 : 신도기본교육 수계식(오전 10시 설법전)
 - ◆ 3월 27일 : 제17기 불교대학 1학기 개강
 - ◆ 3월 31일 : 음력 2월 보름법회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예불시간 변경 안내

- 새벽예불 : 오전 4시 30분
- 저녁예불 : 오후 6시 30분



태백동 급식소 후원금 현황입니다.

(1월 19일~2월 19일)

황두관 10,000	홍승운 20,000	정진이 10,000	(주)카텍 300,000
원광한의원 100,000	박미애 10,000	김인복 10,000	김태연 20,000
김재이 30,000	윤숙희 10,000	김지현 100,000	조성부 100,000
노윤수 10,000	박덕선 100,000	박진호 50,000	홍예현 50,000
찬불단 100,000	윤숙희 10,000	최진환 10,000	서경스님 50,000

◆ 급식소 후원 계좌 :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군법당 지원금(1.19~2.19)

후원회 50,000	유미란 10,000	홍예현 10,000	김지패 1,000,000
금강지 10,000	노윤수 20,000	김성욱 30,000	안옥래 10,000
향운개 10,000	법연화 10,000	이봉숙 10,000	서경스님 100,000

♥ 정초기도 공양

박종호	이용원	이미애	안소현	안종권	최명혜	문종명	이동희
변동일	이광석	강현준					

♥ 입춘 공양

강현준	안종권	정호철	배종각
-----	-----	-----	-----



3월 유치원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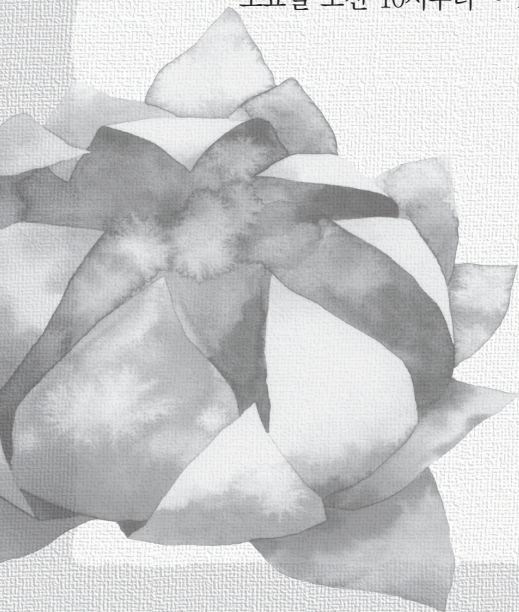
1. 2018학년도 제35회 입학식

- 일시 : 2018년 3월 2일(금)
- 대상 : 신입생, 학부모
- 일시 : 유치원 설법전

3월 어린이법회 활동

1. 개학법회 : 2018년 3월 17일(토)

- 어린이 토요일법회 시간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 12시 입니다



대광산악회 제40차 대광 산악회 천자봉 시산제

- 일 시 : 3월 25일(일) 오전 10시
- 출발지 : 대광사
- 참가비 : 1만원
- 준비물 : 도시락 · 간식 · 따뜻한 물 · 개인컵

대광산악회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수 협 : 921-61-000421
농 협 : 821145-51-042833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
예금주 - 대광사
예금주 - 대광사
예금주 - 대광사